

손흥민·이강인·김민재... 유럽축구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축구 팬 밤잠 설치게 할 유럽축구 2023-2024 시즌 주말부터 개막
프리미어리그 손흥민·리그1 이강인·분데스리가 김민재 활약 주목

축구 팬의 밤잠을 설치게 할 유럽축구가 오는 주말 본격적으로 2023-2024시즌을 시작한다.

김민재(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이적으로 독일 분데스리가와 프랑스 리그1을 향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여전히 가장 많은 시선이 쏠리는 곳은 '한국 축구의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이 짝주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팀 부진에 안와골절 등 부상이 겹치면서 예년만 못한 경기력을 보였다. 스포츠 시장의 통풍도 그를 괴롭혔다.

토트넘 적응기였던 2015-2016시즌(8골)을 제외하면 매 시즌 공식전 20골을 넘나드는 득점력을 꾸준히 보여준 손흥민이지만, 지난 시즌에는 14골에 그쳤다. 리그 기록만 따지면 10골로 두 자릿수를 간신히 채웠다.

서툰한 살로 어느덧 완연한 베테랑이 된 손흥민은 올 시즌 득점포가 녹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프리시즌 친선전에서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점은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새 사령탑인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 축구를 표방하고 있어 손흥민은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단짝이던 해리 케인이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변수다.

또 여름 이적시장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공격형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과 호흡도 중요해 보인다.

토트넘은 13일 오후 10시(이하 한국시각) 브렌트퍼드와 원정 경기로 EPL 개막 라운드를 소화한다. 브렌트퍼드에는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여름에 입단한 센터백 김지수가 뚝뚝고 있다.

지난 시즌 허벅지 부상으로 자주 결장한 울버햄프턴의 '황소' 황희찬도 새 시즌 명예 회복을 할 준비를 마쳤다.

울버햄프턴은 15일 새벽 4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로 개막전을 치른다.

이미 지난 주말 개막한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에서는 셀틱의 '코리아 트리오는'가 출격한다.

겨울 이적시장에서 이적한 스트라이커 오현규가 주로 교체로 뛰면서도 공식전 7골을 기록하며 적응을 마친 가운데 국내 무대를 주름잡던 '영건' 양현준과 미드필더 권혁규가 여름에 새로 합류했다.

2023-2024시즌 유럽 축구에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 영국 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태극전사들이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팬들의 시선을 끄는 곳은 독일 분데스리가와 프랑스 리그1이다.

'1강' 체제가 뚜렷한 두 리그의 최강팀에서 뛰는 한국 선수가 한 시즌에 등장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김민재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에 가세한 이강인이다.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우승팀 나폴리에서 맹활약하며 '괴물 수비수'라는 수식어를 얻은 김민재는 여러 '빅 클럽'들의 영입 물망에 오른 끝에 독일 최고 명문 구단인 뮌헨 선수가 됐다.

뮌헨은 13일 새벽 3시 45분 열리는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으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한다. 리그 첫 경기는 19일 베르더 브레멘과의 원정 경기다.

'한국 축구의 미래'로 불려 온 이강인은 유소년 시절부터 생활하며 성장한 스페인을 떠나 프랑스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토트넘 손흥민

이강인 역시 지난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에서 에이스로 활약하며 많은 클럽의 관심을 받아 왔는데,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떠난 PSG가 영입전에서 승리했다. PSG가 한국 선수를 영입한 건 이강인이 처음이다.



PSG 이강인

2011년 카타르 국부펀드에 인수된 이후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신봉 강호로 떠오른 PSG는 2012-2013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최근 11시즌 동안 9차례 리그 우승을 거둬 프랑스 최강 클럽으로 우뚝 선 팀이다.



뮌헨 김민재

메시는 떠났으나 네이마르를 비롯한 호화 멤버를 자랑하는 PSG는 아직 UCL에선 우승 없이 한 차례 준우승이 최고 성적인데, PSG와 5년 계약을 맺은 이강인이 유럽 정상 정복의 한을 푸는 데 앞장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KIA, 비에 웃고·비에 운다



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8-0으로 LG가 앞선 2회말 경기 도중 우천으로 경기가 중단된 뒤 계속 내리는 비로 노게임이 선언되자 KIA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와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가 비 덕분에 웃었지만 비 때문에 머리가 아파다. KIA는 지난 8일 챔피언스필드에 쏟아진 비를 보면서 내심 미소를 지었다. 이날 선발로 나온 양현종이 1회부터 난타를 당하면서 5실점을 했고, 2회에도 1루수 최원준의 실책 등으로 3실점을 했다.

0-8로 뒤진 상황에서 12승 도전에 나선 LG 플릿코를 상대한 KIA는 2회말 쏟아진 비로 덕아웃으로 철수했다.

오후 7시 14분 경기가 중단됐고, 30분을 넘어서도 하늘을 올려봤던 심판진은 결국 오후 8시 8분 노게임을 선언했다.

빗 속에서도 관람석을 지키고 있던 KIA 팬들은 승리라도 거둔 듯 환호했고, 8점의 리드를 비로 날려버린 LG 선수들은 아쉬움 속에 짐을 꾸렸다.

비 덕분에 양현종은 2이닝 9피안타 1볼넷 8실점(6자책점)이라는 기록을 지을 수 있었고 KIA는 대패 위기에서 한숨 돌릴 수 있었다.

KIA는 지난 1일 삼성전에서 0-6의 승부를 뒤집고 11-8 역전승을 거둔 기억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앞선 경기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이날은 베테랑 양현종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일방적인 흐름이 전개됐고, 비로 경기가 한참 중단됐기 때문

8일 LG전 0-8에서 비로 노게임을 시즌 우천 노게임 16경기 월요일 경기 편성 7연전까지 AG 팬 이의리·최지만 빠져 잔여경기 많아 불펜에 큰 부담

에 경기가 재개됐다면 3회부터는 불펜진이 가동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주에도 선발진의 이닝 부족으로 불펜진이 많은 역할을 했던 만큼 한 주의 시작부터 불펜 대란이 벌어질 수 있던 위기를 진화한 반가운 비가 됐다.

급한 불을 끄면서 한숨은 돌렸지만 순유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을을 생각하며 비 때문에 머리가 아파다.

8일 노게임과 함께 KIA의 올 시즌 우천 취소 경기는 '16경기'에 이른다.

당연히 8일 현재 KIA는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89경기를 소화했다. 등구장을 사용하는 키움(102경기)과는 무려 13경기 차가 난다. KIA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경기를 소화한 팀들과도 4경

기차. 비로 마운드 급한 불은 꺾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운드 고민을 하게 된 상황이다.

9월 10일까지 주말 경기가 비로 취소될 경우, 월요일 경기가 편성된다. 7연전 일정도 준비를 해야 하는 8월이다.

9월 말에는 아시안게임 일정으로 선발 이의리와 필승조 최지만이 자리를 비우게 된다. 여기에 '이닝이터'로 역할을 했던 양현종이 올 시즌 난타를 당하면서 이닝 소화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 만큼 KIA의 '마운드 플랜B'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

KIA는 날씨, 양현종, 아시안게임이라는 변수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김중국 감독은 "연기된 경기를 보면 매일 잔여 경기를 해야 해서 체력적으로 그렇고 로테이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시안게임 기간에도 선발, 중간이 빠지니까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이의리가(아시안게임으로) 빠지기 전에도 로테이션 한 번씩 퓨처스에서 선수를 올리던가 불펜 데어로 갈 생각이다. 선발 선수를 퓨처스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동하, 김재열, 김건국 등이 대체 요원으로 선발 후보군이다. 9월 1일되면(엔트리 확장으로) 선수들 합류되니까 불펜데이도 갈 수도 있고, 상황 맞춰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무릎 X선 검사서 '음성'...14일 컵스전 등판할 듯

타자가 친 타구에 오른쪽 무릎을 정통으로 맞고 마운드에서 내려온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통증을 털어내고 14일(한국시각)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한 홈 경기에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MLB닷컴은 9일 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의 말을 인용해 류현진이 X레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예정대로 다음 경기에 등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류현진의 다음 등판은 14일 오전 2시 37분 캔나

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리는 컵스와 경기로 토론토의 17연전 마지막 경기다.

류현진은 부상 직후 "무릎이 부었지만,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주위를 안심시켰고, 하루가 지난 9일에는 "(전날보다) 훨씬 좋아졌다"며 통증에서 호전 중임을 알렸다. 다만, 다음 등판까지 시간이 제법 남았고 불펜 투구로 컨디션도 점검해야 해 류현진의 복귀 세 번째 등판은 슈나이더 감독의 선발 로테이션 공식 발표가 나와야 확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도전하는 미산 용마고의 우완 투수 장현석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계약했다. /연합뉴스

용마고 투수 장현석, MLB 다저스와 90만달러 계약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도전하는 미산 용마고의 우완 투수 장현석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계약했다.

장현석의 계약 등을 대리는 리코스스포츠에 전시는 장현석이 다저스와 계약금 90만달러(약 11억8800만원)에 사인했다"고 9일 발표했다.

장현석은 리코스스포츠에이전시를 통해 "다저스라는 명문 구단에 입단하게 돼 영광이다"라며 "저를 선택해주신 만큼 열심히 노력해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장현석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다저스 입단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회견장에는 다저스 스카우트팀 관계자가 동석해 영입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연고로 하는 다저스는 '코리아 특급' 박찬호,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현 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빅리그 데뷔를 한 팀으로 유명하다.

장현석은 고교야구 통산 21경기에 등판해 6승 3패, 평균자책점 1.85를 기록 중이다. 장현석은 아마추어 선수로는 유일하게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연합뉴스